광양시, 침체된 상권 활성화 방안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상권 활성화 공모 준비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활용

4개 주요 상권 특색자원 활용해 차별화된 상권 조성

광양시는 상권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광양읍·중마동·광영동·금호동을 중심으로 침체된 주요 상권 분석을 위해 '광양시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순선 부시장 주재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용역은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착수보고회는 광양시의회 정구호 총무위원장, 최대원 산건위원장, 박철수 의원, 정회기 의원 등 시의원과 박형배 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명수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백정일 경제활성화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상공인계와 시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내수경기 침체, 대형마트의 확장,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광양시 전역 상권을 분석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담고 있어 그림의 폭이 크다.

주요 과업은 ▲상권 실태조사 분석 및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상점가의 육성계획 및 활성화 방안 ▲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분석 ▲상권별 콘셉트 설정 및 상인회 조직화 전략 ▲자율상권 구역 지정 및 상생협약 체결 ▲골목형 상점가 구역 지정 및 조직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 의견 조사 등이다.

특히, 표준화된 설문지 외에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대면하는 인터뷰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이번 과업은 지난 20여 년간 전국의 상권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분야, 공설시장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분야, 상인교육 및 지역 역량강화 분야 등 용역을 추진한 ㈜케이엠경영전략연구원(대표 권영식)에서 수행한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지역 4개 상권을 대표하는 소상공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우선"이라며 "지역별 기존, 현행, 미래 사업의 연계와 문화·관광·체육시설, 대형 유통시설 등 시 핵심 시설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무엇보다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상권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관과 민, 각계 지역 곳곳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내 흩어져있는 다수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 정립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덧붙여 "내실 있는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사업, 농촌 활성화사업 등 기존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각종 자료 취합과 참고가 필요하다"고 용역사에 요청했다.

김명수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광양센터 유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논리, 당위성 등을 잘 정리해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전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순천시, 민원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개시

24시간 실시간 민원응대 제공

순천시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온라인 창구인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24시간 실시간 민원응대가 가능한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를 순천시 누리집과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 적용하고, 시정정보와 민원 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분석해 24개 분야 450종의 질의 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챗봇의 공식 명칭은 '이루미'로 '이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루미'라는 뜻이다. 챗봇 전용 아이콘은 시 마스코트인 '루미와 뚱이'를 활용했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라는 의미를 담아 초록색으로 사용자환경(UI)을 구현했다.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단순한 민원은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시간 제약 없이 질의 답변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단순·반복적인 민원 상담 업무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한 인공지능(AI) 챗봇 시스템은 단순 민원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일반적이고 넓은 범위에 대해서만 답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학습을 통해 답변이 정확해진다.

시는 향후 기존 챗봇 시스템을 고도화해 채팅창 안에서 직접 민원신청, 각종 시설 예약, 수강신청 서비스 등 원스톱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순천시 디지털정책과 관계자는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빠른 민원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고흥군은 7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설립동의자 24명을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익성이 강조된 국토교통부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고흥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행정적 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설립된 고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8차례를 거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총 26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후, 8월부터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모집을 통해 24명의 발기인과 설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개월간 열띤 회의를 거쳐 정관 작성, 사업계획 구성 등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제반 절차를 밟아왔다.

설립동의자 24명의 열정으로 마을조합의 명칭은 '고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정됐으며,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조성한 고흥 사랑방, 수제 맥주 브루어리 등 공간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 사업 ▲도시재생 공공시설 운영 관리 ▲수제 맥주 생산·판매사업 ▲마을 관리(집수리, 조경) 등 4개 주 사업과 교육 서비스 사업 등 16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고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박정호 이사장은 "앞으로 고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체 활성화 목적에 맞게 지역 주민들 중심에서 서서 주민들과 함께 활동한 노하우로 기초 생활 인프라가 잘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실시

보성군은 지난 7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읍면장 및 읍면 맞춤형복지팀장, 담당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위기가구발굴지원팀 주관으로 지난 4월 수립한'202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히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김철우 군수와 사회적복지 이슈에 대한 면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진단과 분석,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 제시 및 우수사례 소개 등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성=김덕순 기자